

보도시점 2024. 6. 21.(금) 조간  
2024. 6. 20.(목) 12:00

배포 2024. 6. 20.(목)

##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확정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 개정(6.2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될 경고그림·문구를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6월 21일(금)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2024년 12월 22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그림·문구(2024.12.23. ~ 2026.12.22.)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4개월마다 경고그림·문구 고시, 고시 시행 시에는 6개월 이상 유예 기간 필요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 중이며,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되어,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안을 개발하였으며,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성인·청소년 약 2,100명 대상 제5기 경고그림·문구 후보안 인식도 조사 실시('24.2.)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5인 구성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시성,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림과 문구를 선정하였다. 쉼련의 경우, 그림 주제 10종에서 2종은 교체하여,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병변 주제 비중을 높였으며(5:5→7:3)\*, 경고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하였다. 전자담배 2종(쉼련형·액상형)은 그림 주제를 늘리되(1→2종), 문구는 현행안을 유지한다.

\* (도입) 병변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 (삭제) 비병변 2종(임산부흡연·조기사망)

\*\* (예) 폐암(제4기) → 폐암으로 가는 길(제5기)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에 표기하는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 교체는 익숙함을 방지하면서도,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전하면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담뱃갑 건강경고 메시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모든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금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2.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선정 근거  
 3.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전부개정고시안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1의2  
 5.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금연정책전문위원회 구성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책임자	과 장	정연희 (044-202-2820)
		담당자	사무관	이원의 (044-202-2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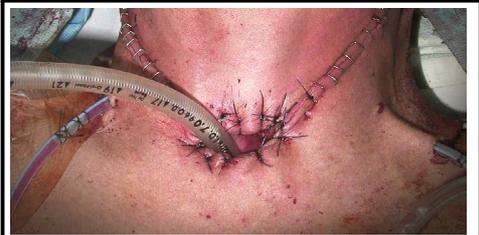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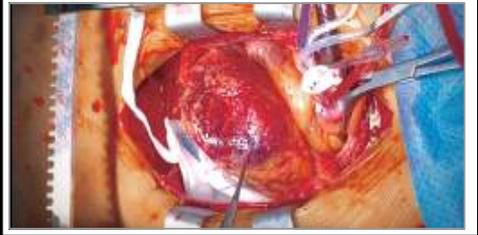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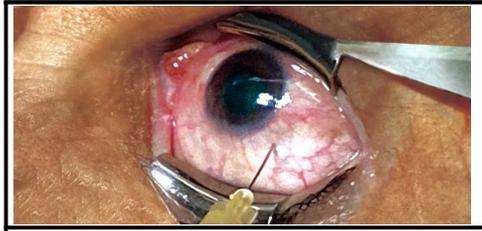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내용**

주제	현행 (제4기)	교체 (제5기)
폐암	 <p data-bbox="571 656 639 696">폐암</p>	<p data-bbox="863 465 938 607">(그림·문구 교체)</p>  <p data-bbox="1066 656 1326 696">폐암으로 가는 길</p>
후두암	 <p data-bbox="555 981 655 1021">후두암</p>	<p data-bbox="863 797 938 938">(그림·문구 교체)</p>  <p data-bbox="1050 981 1342 1021">후두암으로 가는 길</p>
구강암	 <p data-bbox="555 1305 655 1346">구강암</p>	<p data-bbox="863 1122 938 1263">(그림·문구 교체)</p>  <p data-bbox="1050 1305 1342 1346">구강암으로 가는 길</p>
심장질환	 <p data-bbox="555 1630 655 1671">심장병</p>	<p data-bbox="863 1447 938 1588">(그림·문구 교체)</p>  <p data-bbox="1050 1630 1342 1671">심장마비로 가는 길</p>
뇌졸중	 <p data-bbox="555 1955 655 1995">뇌졸중</p>	<p data-bbox="863 1771 938 1912">(그림·문구 교체)</p>  <p data-bbox="1050 1955 1342 1995">뇌졸중으로 가는 길</p>

안질환

-

⇒  
(신규  
주제  
도입)



실명으로 가는 길

말초혈관  
질환

-

⇒  
(신규  
주제  
도입)



말초혈관질환으로 가는 길

간접흡연



간접흡연 피해

⇒  
(그림  
유지,  
문구  
교체)



남을 병들게 하는 길

임산부  
흡연



기형아 출산

⇒  
(주제  
삭제)

-

성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

⇒  
(그림  
유지,  
문구  
교체)



성기능 장애로 가는 길

조기사망



수명단축

⇒  
(주제  
삭제)

-

치아변색



치아변색

⇒  
(그림·  
문구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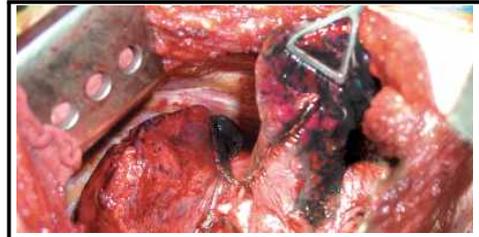
치아변색으로 가는 길

액상형  
전자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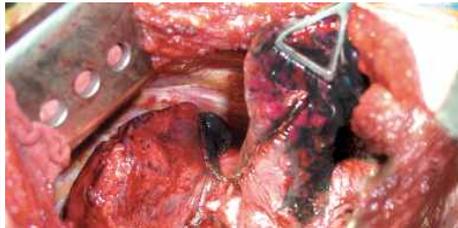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  
(그림  
교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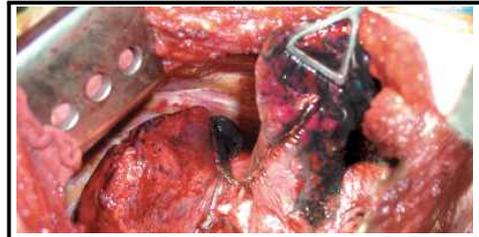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궤련형  
전자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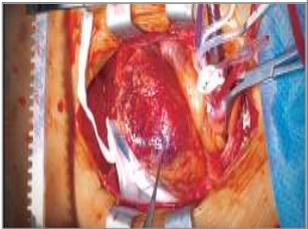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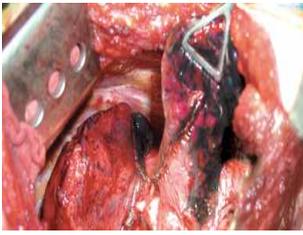
⇒  
(그림  
유지·  
추가)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유형	그림 설명	선정 근거
	<p>■ 폐암 수술 장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은 폐암의 직접적인 원인, 비흡연자도 간접 흡연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 20~30% 증가(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4)</li> <li>■ 폐암 발병의 80~90%는 흡연과 직결(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04)</li> <li>■ 담배연기에 포함된 73개의 발암물질 중 20개 이상이 폐암 유발 인자로 규명(IARC, 2004)</li> <li>■ 하루 한 갑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병 확률 약 24~26배 증가(Thun et al., 2013)</li> </ul>
	<p>■ 후두암 환자 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은 후두암의 직접적 원인(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4)</li> <li>■ 후두암의 80%는 흡연 원인(Australian Government, 2012)</li> <li>■ 하루 한 갑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후두암 발병 확률 13~14배 증가(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4)</li> <li>■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 대비 후두암 발생 위험 7.0배 증가(Zuo et al., 2017)</li> </ul>
	<p>■ 구강암 환자 사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강암의 약 50%는 흡연이 원인(Rehm et al., 2006)</li> <li>■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 발병 확률 약 10배 증가, 치료 후 재발 가능성도 증가(IARC, 1988)</li> <li>■ 금연 시작과 동시에 구강암 발병률은 급격히 감소, 금연 10년 후 비흡연자 발병률 수준으로 감소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04; Marron, 2010)</li> </ul>
	<p>■ 심장 수술 장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장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20%는 흡연이 원인이며, 금연을 통해 심혈관질환 위험은 50% 이상 감소(WHO, 2009; Mendis et al., 2011)</li> <li>■ 금연 시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36% 감소 (Critchley et al., 2003)</li> <li>■ 흡연은 심혈관질환의 주요 원인, 혈청 지질 수치에 영향을 미치고 흡연 단독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 수준 2배(Burns, 2003).</li> <li>■ 과거 흡연자는 비흡연자 대비 심부전증 발생 위험 1.2배 증가(Lee &amp; Son, 2019)</li> </ul>
	<p>■ 뇌졸중 수술 장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WHO, 2016)</li> <li>■ 흡연은 65세 미만 뇌졸중 발병의 주요 원인 (Thun, 2000;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04)</li> <li>■ 흡연과 뇌졸중 간 강한 연관성, 현재 흡연자는 평생 비흡연자·10년 이상 금연자에 비해 뇌졸중 위험 최소 2~4배 증가(Bonita et al., 1999)</li> </ul>

	<p>■ 안질환 치료 장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은 심각한 눈질환과 영구적 시력 상실의 위험을 증가시킴(WHO, 2022)</li> <li>■ 안구 모세혈관의 죽상동맥경화증, 혈전증을 유발해 수정체망막의 형태기능 변화 유발(Krishnaiah et al., 2005)</li> <li>■ 세계적으로 백내장으로 인한 시력상실 주요 원인으로 흡연 제시(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20)</li> <li>■ 흡연으로 인한 수정체 손상은 담배 연기에서 열분해된 유기물질과 관련(Krishnaiah et al., 2005)</li> <li>■ 흡연 시 핵성 백내장 발병위험 3배 증가(Kelly et al., 2005)</li> <li>■ 흡연은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망막변성 가능성을 2-3배 높임(Thornton et al., 2005)</li> </ul>
	<p>■ 말초혈관질환 치료 장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은 말초혈관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 해당 질환과 상관관계 있음(Criqui &amp; Aboyans, 2015; Creager, 2014)</li> <li>■ 세계적으로 말초혈관 질환 관련 사망의 약 1/4이 담배 사용 기인(Lin et al., 2022)</li> <li>■ 체계적 문헌고찰 시, 말초혈관질환 사례의 절반은 흡연 기인(Morley et al., 2018)</li> <li>■ 흡연은 말초동맥질환 및 급발성 하지 허혈증의 발생 위험 증가 유발(Farber &amp; Eberhardt, 2016)</li> </ul>
	<p>■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비유적으로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약 40%의 어린이는 간접흡연 노출 (Öberg et al., 2011)</li> <li>■ 하루 평균 한 시간 이상 간접흡연 노출 시,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발병률 약 3배 증가 (Padrón et al., 2015)</li> <li>■ 부모가 흡연자일 경우, 급성 호흡기 질환 60% 증가(Strachan &amp; Cook, 1997)</li> <li>■ 부모 흡연은 유아돌연사 원인, 부모 모두 흡연자시 위험도 증가(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06)</li> <li>■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최소 250여종 이상의 유해화학 물질에 노출(National Toxicology Program, NTP,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li> </ul>
	<p>■ 흡연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를 비유적으로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 사용은 선천성 기형, 태아 발달, 임신 중 고혈압성 질환, 남성 성기능 장애 등의 임신 관련 문제 및 생식기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임 (질병관리청, 담배폐해통합보고서, 2022))</li> <li>■ 남성흡연자는 중증의 발기부전 발생 확률은 비흡연자 대비 약 2배 증가(McVARY et al., 2001; Mirone et al., 200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은 정자의 질 감소 및 정자 수 감소에 영향, 흡연자에게서 기형 정자 발견 빈도 증가 (Merino et al.,1998)</li> </ul>
	<p>■ <b>치아변색 등 치료장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는 치아변색의 주요 원인 (Ness et al., 1977; Mirbod &amp; Ahing, 2000; Reibel, 2003)</li> <li>■ 담배 사용은 치주질환 발생 위험을 높임(질병관리청, 담배폐해통합보고서, 2022))</li> <li>■ 흡연은 인체 면역시스템을 자극하여 치아 구조와 결합조직을 파괴시켜 치주질환 유발(Sham et al., 2003; Zee, 2009)</li> <li>■ 흡연은 치아 손상·망실 위험을 2~3배 증가시킴 (Züllich et al, 1975; 2Dietrich et al, 2007; Al-Byaty et al, 2008)</li> <li>■ 치아우식증 위험요인인 에스.뮤탄스(S.mutans)와 락토바실러스균(Lactobacillus)의 수는 흡연자가 비흡연자 대비 유의하게 높음(강현경&amp;허성은, 2015)</li> </ul>
	<p>■ <b>암질환 관련 수술 장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액상형)</b> 액상형 전자담배 에어로졸에 함유된 화학물질들은 암 발생 가능성을 높임(MS Thang and YL Tang, 2022)</li> <li>■ <b>(궤련형)</b> 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변화시켜 기도에 염증반응 유발, 심각할 경우 폐암 유도 등 위험성 내포(Znyk et al. 2021)</li> </ul>
	<p>■ <b>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을 비유적으로 표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상형 전자담배의 맛과 향은 보상 및 중독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시켜 도파민 방출 증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은 니코틴 의존성을 높이며, 중독 유도(Nguyen et al., 2019)</li> <li>■ 액상형 전자담배 에어로졸에 함유된 화학물질들이 암 발생 가능성을 높임(MS Thang and YL Tang, 2022)</li> <li>■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은 니코틴 의존 또는 중독과 관련 있음(Banks et al., 2023)</li> </ul>
	<p>■ <b>궤련형 전자담배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을 비유적으로 표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궤련형 전자담배의 에어로졸에 포함된 니코틴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며, 니코틴에 노출되면 주의력, 학습, 기분과 충동 조절 부위의 작용을 저하시키고 (Upadhyay et al., 2023), 니코틴 의존성 뿐 아니라 다른 물질에의 중독 가능성을 높임(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E-cigarette Use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6. Accessed November 2, 2023.)</li> <li>■ 궤련형 전자담배 기기 장치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담배 소비량이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할 수 있음(Upadhyay et al., 2023).</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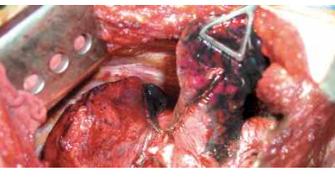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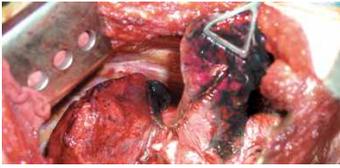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 (상단표기)	뒷면	옆면
1. 폐암		폐암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후두암		후두암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3. 구강암		구강암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4. 심장질환		심장마비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5. 뇌졸중		뇌졸중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금연상담전화 1544-9030	
6. 안질환		실명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7. 말초혈관 질환		말초혈관질환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 (상단표기)	뒷면	옆면
8. 간접흡연		남을 병들게 하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성기능 장애		성기능 장애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 치아변색		치아변색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각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동일한 비율(앞·뒷면은 별개로 봄)로 적용토록 하여야 하며,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배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

## □ 전자담배 등의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 (상단표기)	뒷면	옆면
1.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	경고그림 (상단표기)	경고문구		
		앞면 (상단표기)	뒷면	옆면
2. 전자담배 (궤련형 및 기타유형)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자담배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씹는 담배		구강암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강암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씹는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4. 물담배		폐암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폐암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물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5. 머금은 담배		구강암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구강암으로 가는 길 금연상담전화 1544-9030	머금은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이 표의 1호와 2호에 포함된 각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동일한 비율(앞·뒷면은 별개로 봄)로 적용토록 하여야 하며, 위 경고그림등 표기내용을 담뱃갑 포장지에 선명하게 표기하기 위해 제품 사이즈(size), 해상도 등에 맞는 이미지 제공을 전자파일 등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따른다.

**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방법**

(제16조제4항 및 제16조의2제3항 관련)

## 1. 위치

가. 담배갑포장지의 앞면·뒷면에 경고그림등을 표기하되, 상단에 표기한다.

나. 담배갑포장지의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되, 옆면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의 크기로 표기한다.

## 2. 형태

경고그림등은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한다. 다만, 담배 제품의 모양이 원통형으로 되어있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테두리 안에 표기한다.

## 3. 글자체

경고그림등에 사용되는 글자는 고딕체로 표기한다.

## 4. 색상

경고그림등에 사용되는 색상은 그 포장지와 보색 대비로 선명하게 표기한다. 다만, 경고그림의 색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고그림의 색상을 그대로 표기한다.

## 비 고

1.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는 두께 2 밀리미터의 검정색 선으로 만들어야 한다.

2. 위 표의 제2호에 따른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등 외의 다른 그림, 문구 등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 위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국방부 보건복지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민간 위원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손애리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홍인 서울대학교 휴먼시스템의학과 교수
	민태원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
	이순영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전계순 (사)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문창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특임교수
정부 위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장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응과장
민간 위원	김수영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장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안순태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임민경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조흥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열 국립암센터 가정의학클리닉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유현재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